

Big shifts, small steps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설문조사 리포트

November 2022

—
삼성KPMG 경제연구원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Big Shifts, small steps(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를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 표지 클릭 시, 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정미주
선임연구원
T 02-2112-4802
E mijujung@kr.kpmg.com

Contents

Overview: 분석대상 및 방법론	3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4
기후 위기 및 탄소 저감 관련 보고	9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 보고	12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	14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고려사항	16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연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Overview: 분석대상 및 방법론

KPMG는 전 세계 58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Sustainability Reporting)'에 대해 분석한 『Big shifts, small steps: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를 발간했다.

지난 20여 년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2022년 6월 유럽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최종안에 합의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것을 필두로 향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이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규제를 충족하고자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한다.

2022 KPMG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설문조사
분석기업군 및 보고서

N100

- KPMG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한 58개 국가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 선별, 총 5,800개 기업 대상
- N100 통계는 전 세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스냅샷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G250

- 2021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으로 구성
- 이들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트렌드 주도
- G250 통계는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변화 방향성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 제공 목적

2020년 7월 1일 이후 데이터 기반 N100, G250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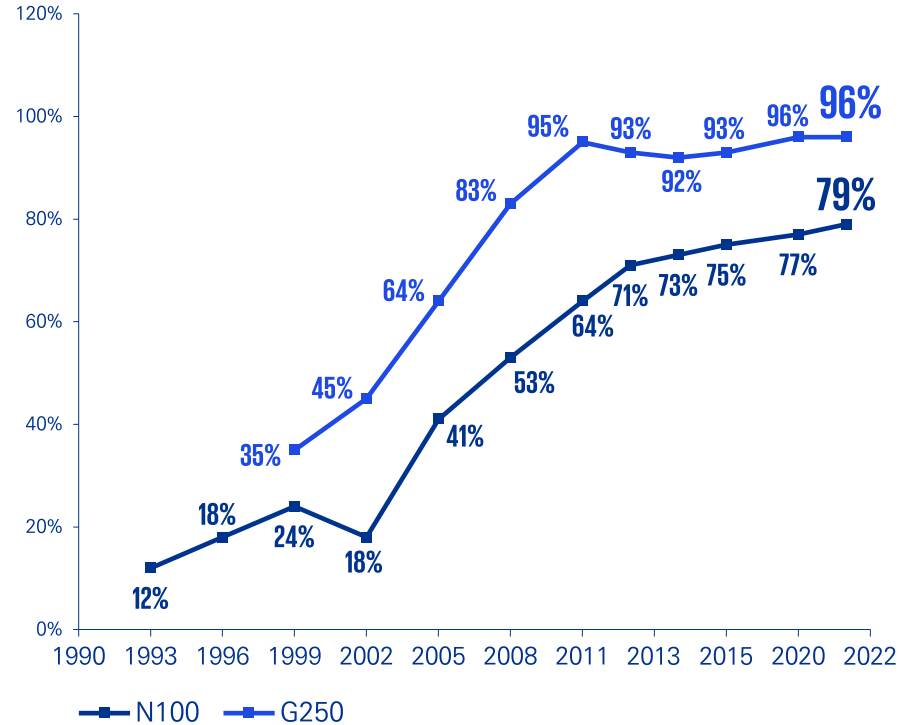
- N100, G250 기업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발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우선 분석, 단, 해당 기간에 발간된 보고서가 없는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 분석으로 대체
- 분석된 모든 정보는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22년 N100 79%, G250 96% 공시

2022 KPMG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전에만 해도 N100 기업들의 64%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나, 이후 꾸준히 지속가능성 공시율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N100 기업들의 79%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50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은 96%로 G250에 속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G250 중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인데, 향후에는 중국 기업 역시 당국의 규제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율 (1993-2022)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지역별 지속가능성 공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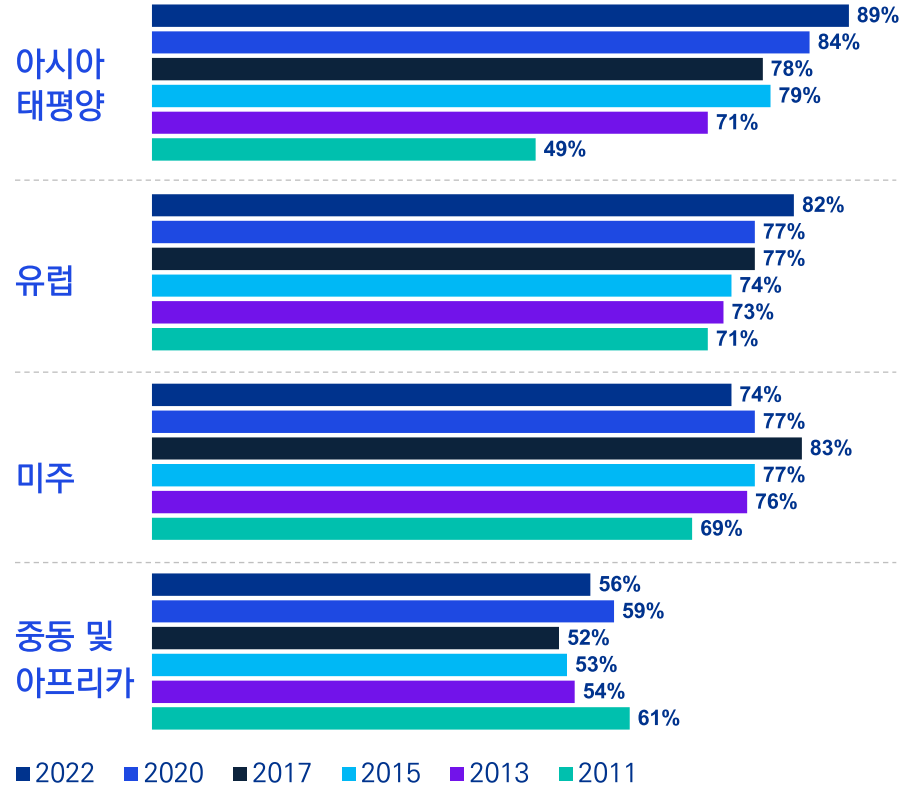
N100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이 89%로 가장 높았고 유럽(82%)과 미주(74%), 중동 및 아프리카(56%)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공시율이 90% 이상인 국가가 7개로 일본(100%), 싱가포르(100%), 말레이시아(99%), 한국(99%), 태국(97%), 대만(94%), 파키스탄(91%)이다.

유럽은 각종 ESG 관련 규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ESG 이행 요구로 인해 지속가능성 공시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대외적 압력은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와 같은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주 지역은 남미 기업들이 새롭게 N100에 진입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율이 평균보다 낮아 '20년 대비 3%p 감소했다. 그러나 북미지역의 경우 2022년에 N100 기업 중 97%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면서 높은 공시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지속가능성 공시율(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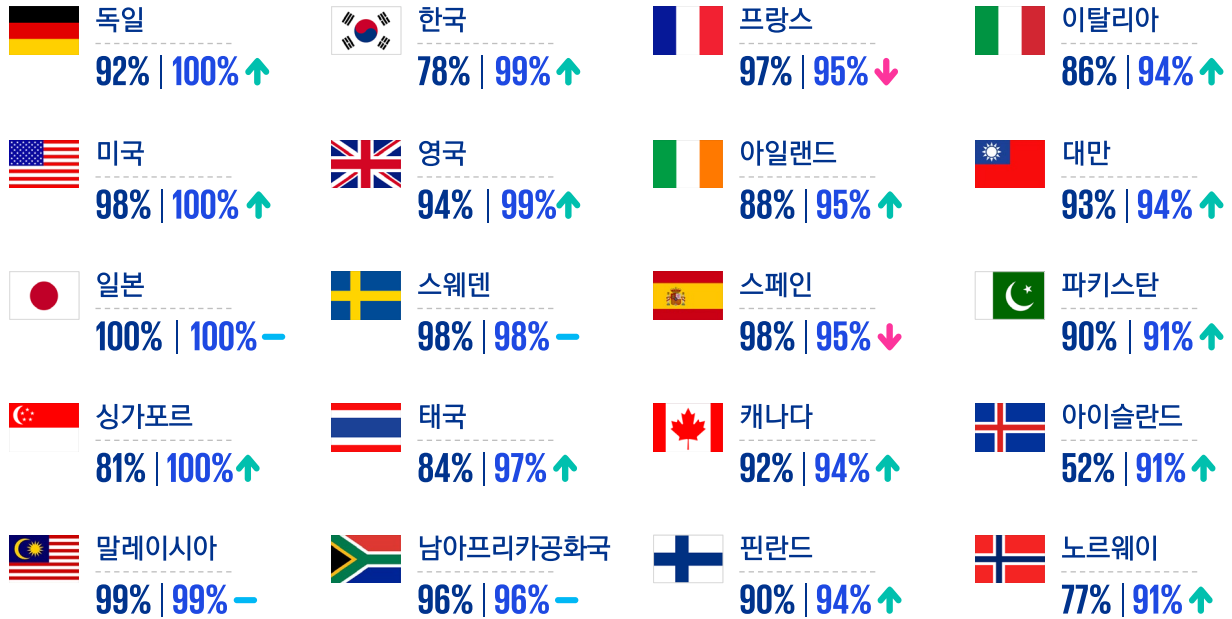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2022년 기준 아시아 그룹 샘플 수 1,340개, 유럽 그룹 샘플 수 1,967개, 미주 그룹 샘플 수 882개, 중동 및 아프리카 그룹 샘플 수는 392개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20년 및 '22년 국가별 공시율 변화

2022년 기준 지속가능성 공시율 90% 이상인 국가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율 22%p 증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ESG 기조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선도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를 구축,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ESG 경영 체계로 전환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된 배경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ESG 추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우호적 태도, ESG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 그리고 한국 정부 및 감독 당국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품질 향상 요구와 그에 따른 규제를 들 수 있다.

감독 당국인 한국증권거래소(KOSPI)는 2025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ESG 기반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은 ESG 정보 공시의 투명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황정환
 Sustainability Reporting Lead
 Partner, ESG Center of Excellence
 KPMG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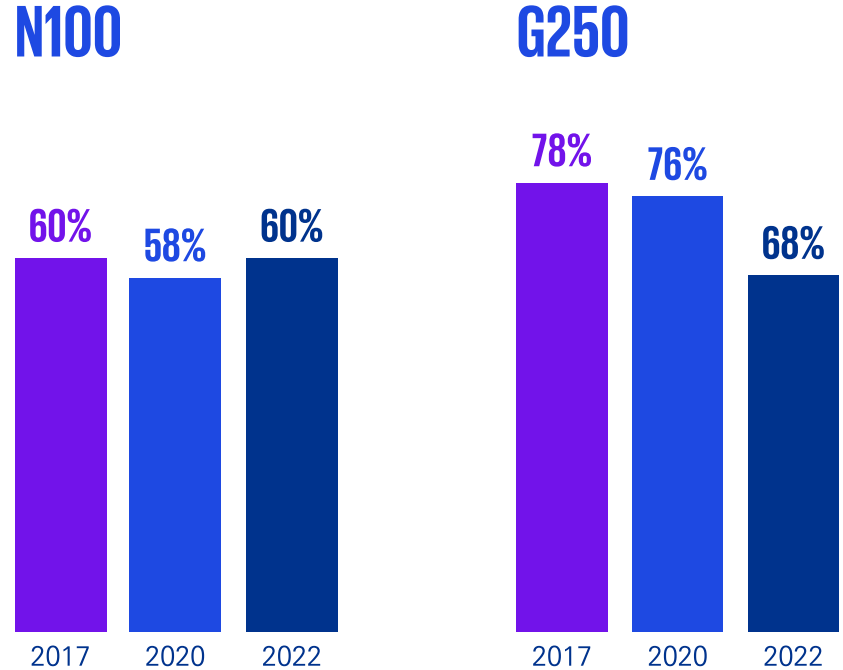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연간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포함 기업 비율

2022년 연간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기업은 N100의 60%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G250에서는 2022년 연간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기업이 68%로 2020년보다 오히려 8%p 하락했다.

한편, 2022년 연간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N100 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재무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기업(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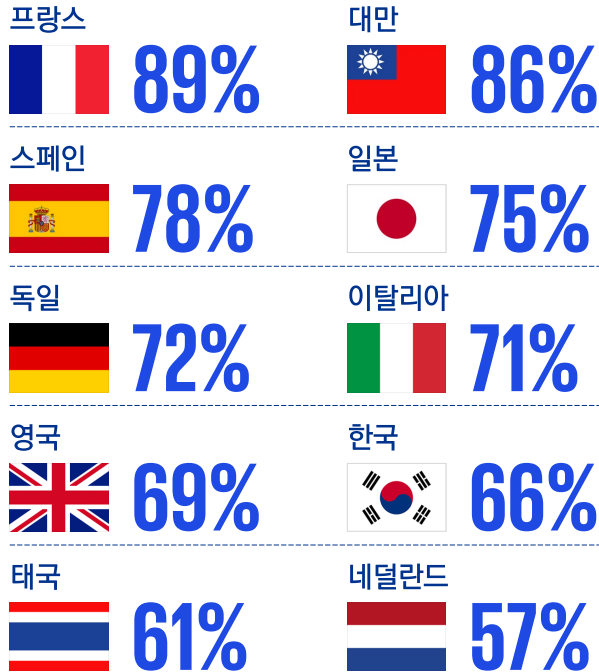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국가·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기업 비율

2022년 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기업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국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을 받은 N100 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89%), 대만(86%) 등이 있으며 한국은 66%로 8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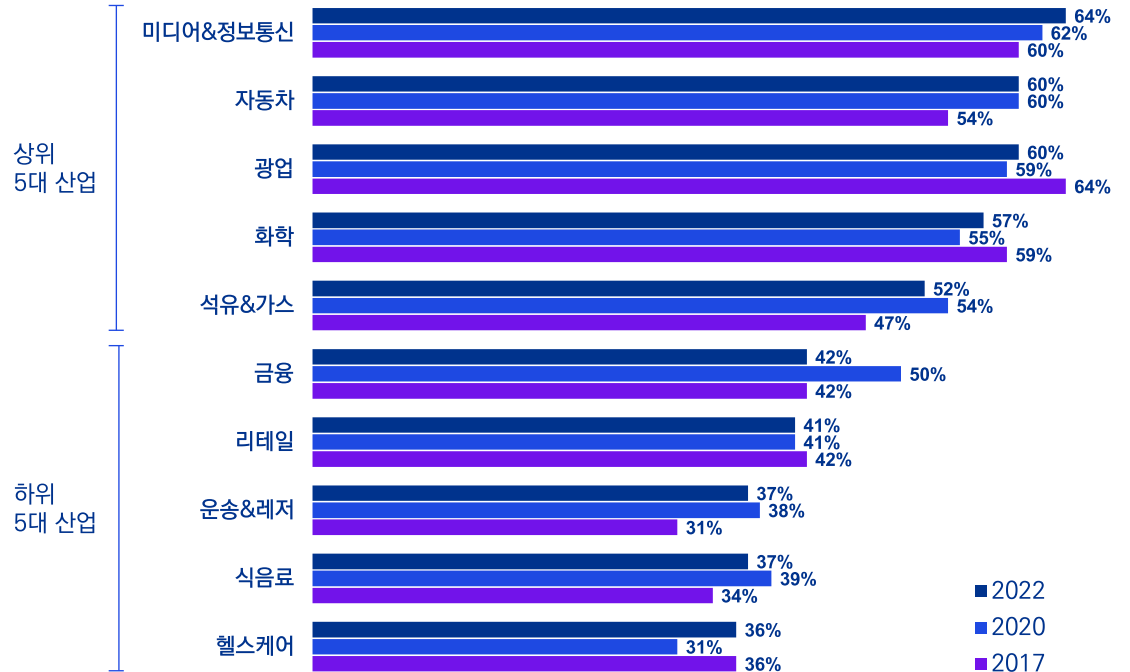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N100 기업 비율 (2017-2022)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을 받은 N100 기업의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미디어&정보통신 산업이 64%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헬스케어 산업이 36%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기후 위기 및 탄소 저감 관련 보고: '22년 N100 71%, G250 80%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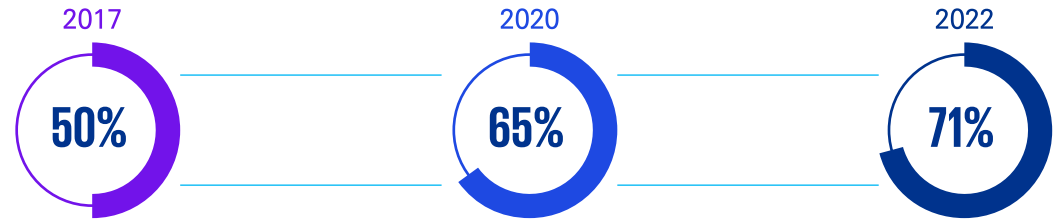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설립된 지 2년 만인 2017년에, N100과 G250의 절반 이상이 탄소 저감 목표치를 공개했다.

이후 탄소 저감 목표의 공시율은 두 그룹 모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N100의 경우 2020년부터 6%p 상승한 71%를 기록했고, G250는 4%p 상승한 8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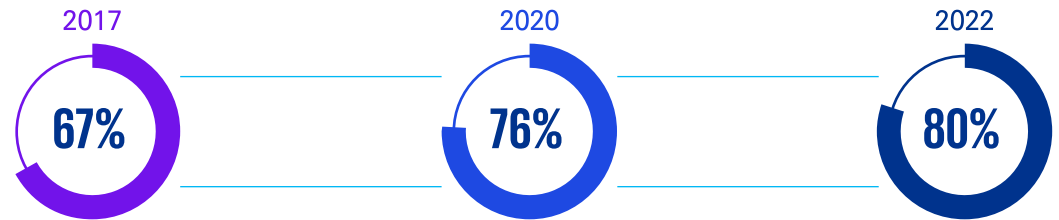
한편, 탄소 저감 목표의 공시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96%), 일본(95%), 독일(94%) 순서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80%), 미주(74%), 그리고 아시아·태평양(62%) 지역에서 탄소 저감 목표의 공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동(54%)과 아프리카(54%)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탄소 저감 목표에 대한 전 세계 기업들의 공시율(2017-2022)

N100



G250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4,581개 기업) 및 G250(240개 기업) 대상

기후 위기 및 탄소 저감 관련 보고: TCFD 채택의 뚜렷한 증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TCFD 채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N100의 경우 약 1/3인 34%가 TCFD 권고안을 채택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G250의 경우 약 2/3인 61%가 TCFD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대비 24%p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TCFD에 따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G7 국가들은 TCFD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금융권에 속한 대기업에 2023년부터 TCFD에 따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가장 먼저 나섰다. TCFD는 2021년 기준 89개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2,600개 이상의 기업이 TCFD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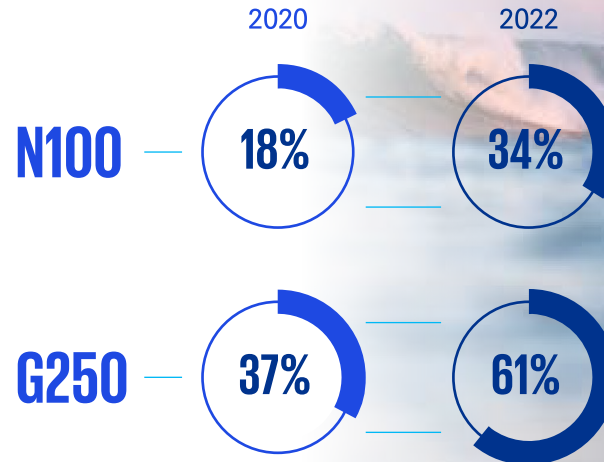
TCFD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해 2015년 설립됐다.

이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정보 공개 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CFD가 2017년에 제시한 권고안은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KPMG는 TCFD의 첫 번째 회원 중 하나였으며, 고객사를 대상으로 TCFD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의 TCFD 채택률(2020-2022)



기후 위기 및 탄소 저감 관련 보고: 산업별 공시 현황

TCFD 채택률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N100과 G250 모두 B2C(Business to Consumer) 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TCFD를 채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N100의 TCFD 채택률은 자동차(60%), 광업(50%), 미디어 & 정보통신(45%)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금융 산업의 경우 TCFD 채택률이 전체의 1/3 수준인 34%에 그치고 있다.

한편, G250의 경우 금융 산업의 TCFD 채택률은 70%로 미디어 & 정보통신(75%), 리테일(71%) 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모든 기업은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TCFD 채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산업별 TCFD 채택률(2020-2022)

N100

● 2020년 ● 2022년



자동차
32% | 60%



광업
29% | 50%



미디어 & 정보통신
20% | 45%



화학
23% | 39%



석유 & 가스
31% | 41%



유틸리티
20% | 38%



금융
25% | 34%



임업 & 제지
11% | 33%



중공업 & 금속
16% | 31%



개인생활용품
12% | 31%



리테일
7% | 27%



헬스케어
7% | 27%



건설 & 건설자재
12% | 26%



식음료
11% | 26%



운송 & 여가
7% | 23%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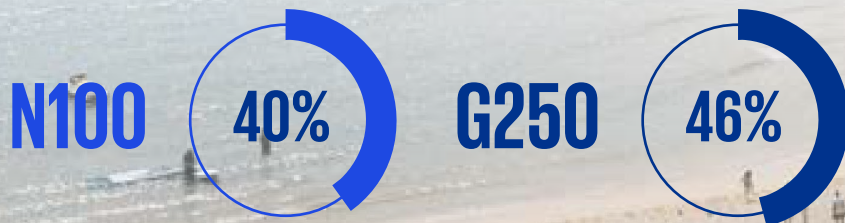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 보고: '22년 N100 40%, G250 46% 공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지구에 있는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KPMG는 2020년에 처음으로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손실(Biodiversity loss)로 인한 리스크를 공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손실 위험이 기업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다.

2년 전 KPMG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가 고위험 또는 중간 위험으로 조사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전 산업에 걸쳐 생물다양성 리스크 공시율을 공개했다(p.13 참고). 또한 2022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N100 기업 중 40%와 G250 기업 중 4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또는 자연자본 손실을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또는 자연자본의 강화가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위험은 공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손실 위험을 더 많이 공시하도록 촉구하려면, TNFD(Task Force on Natural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와 같은 공시 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생물다양성 공시율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지속가능성 또는 ESG 이슈를 공시한 N100(4,581개 기업) 및 G250(240개 기업) 대상

TNFD란?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 Task Force on Natural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시장 주도의 개방형 혁신 접근법으로서, 2020년 7월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을 중심으로 2021년 6월 공식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다. TNFD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 관련 위험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에 관한 재무정보 공개 기준(프레임워크)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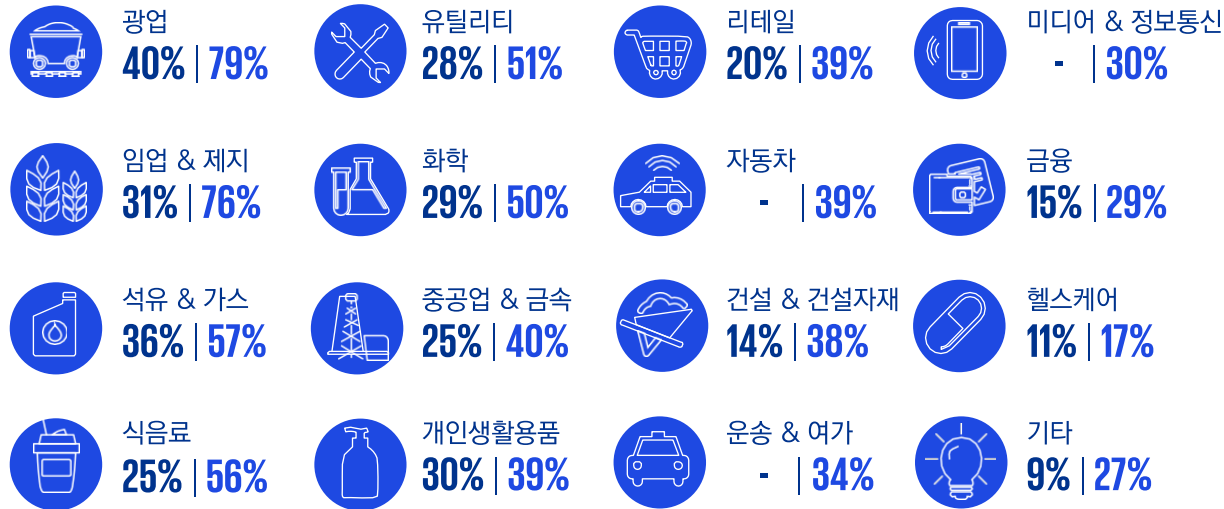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 보고: 산업별 공시 현황

산업별로 보면 점점 더 다양한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영향을 인식,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N100 기업을 보면, 2020년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공시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2022년에는 미디어 및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의 공시율이 특히 증가했다. G250 기업의 경우,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65%의 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를 공시했으며 그 뒤를 리테일 산업(59%)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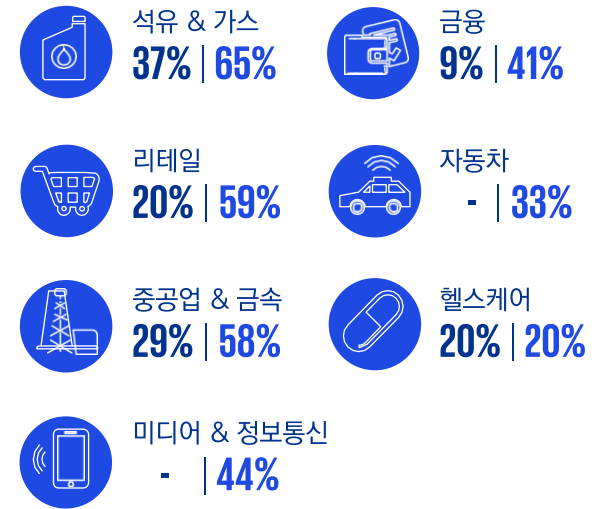
산업별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리스크 공시율 변화(2020-2022)

● 2020년 ● 2022년

N100



G250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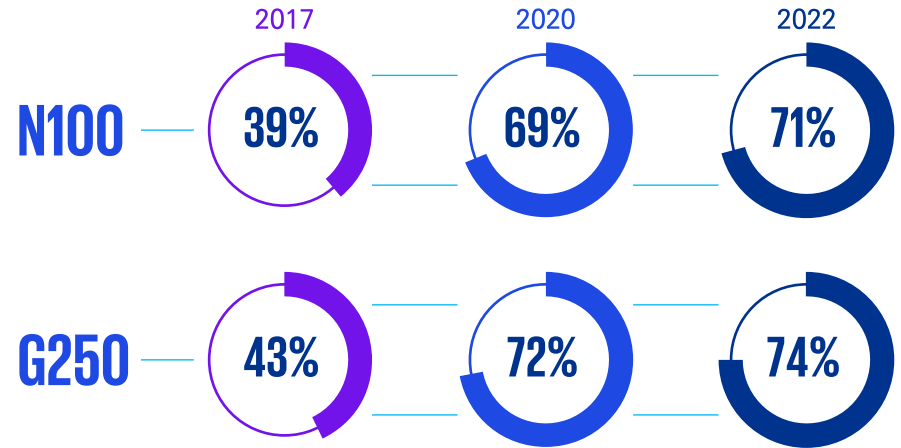
Note: 지속가능성 또는 ESG 이슈를 공시한 N100(4,581개 기업) 및 G250(240개 기업) 대상, “-” 표시는 2020년 조사 당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2020년 조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의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 '22년 N100 71%, G250 74% 공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말한다. 17개 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도출되었으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한다.

KPMG는 2015년부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이 기업들에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입했고, 2020년부터 지난 2년 동안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N100의 경우 2%p 증가하여 71%의 공시율을 보였고, G250도 2%p 증가하여 2022년 기준 G250의 4분의 3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공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SDG 공시율(2017-2022)



UN SDGs란?

17개의 SDGs는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 파괴, 평화, 정의와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기반으로 UN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SDGs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SDGs를 채택한다.

Note: 지속가능성 또는 ESG 이슈를 공시한 N100(4,581개 기업) 및 G250(240개 기업) 대상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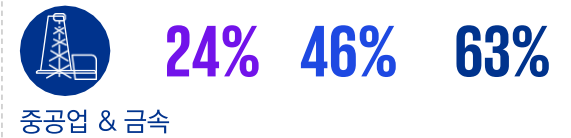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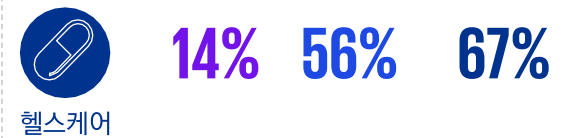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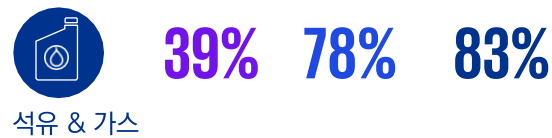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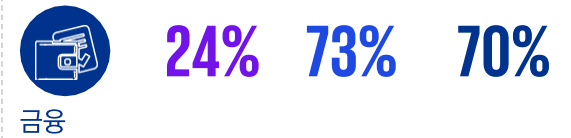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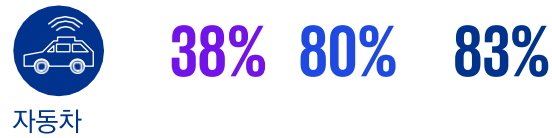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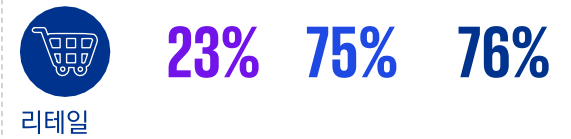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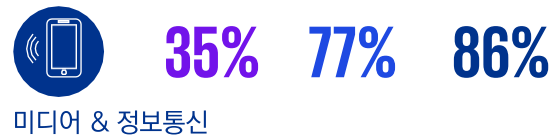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 산업별 공시 현황

산업별 SDG 공시율(2017-2022)

G250

● 2017년 ● 2020년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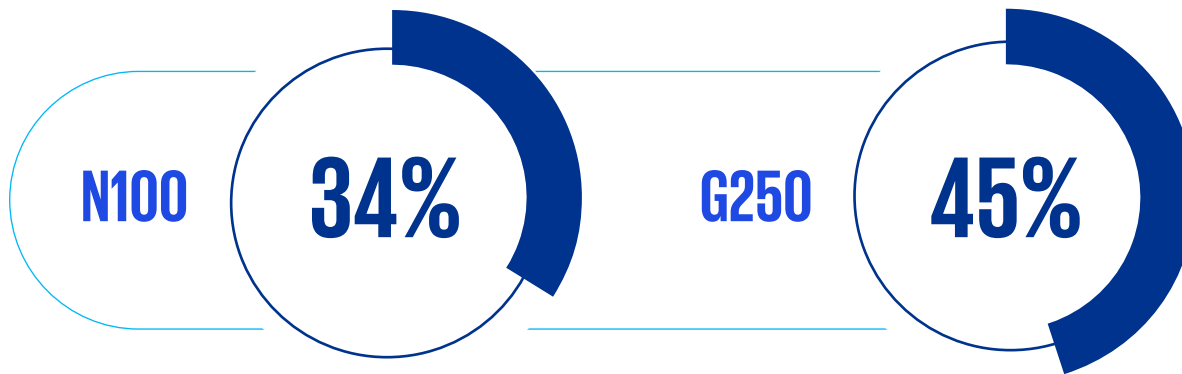
Note: 지속가능성 또는 ESG 이슈를 공시한 G250(240개 기업) 대상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고려사항: 지속가능성 전담 리더십·팀 필요

KPMG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 내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담하는 리더십이나 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지속가능성 전담 리더십 및 팀 존재 여부는 ESG 목표 달성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N100 기업 중에서는 34%만이 지속가능성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만이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진의 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한편, G250 기업 중에서는 45%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담하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2년 기준 지속가능성 이슈 전담 리더십 또는 전담팀 보유 기업 비율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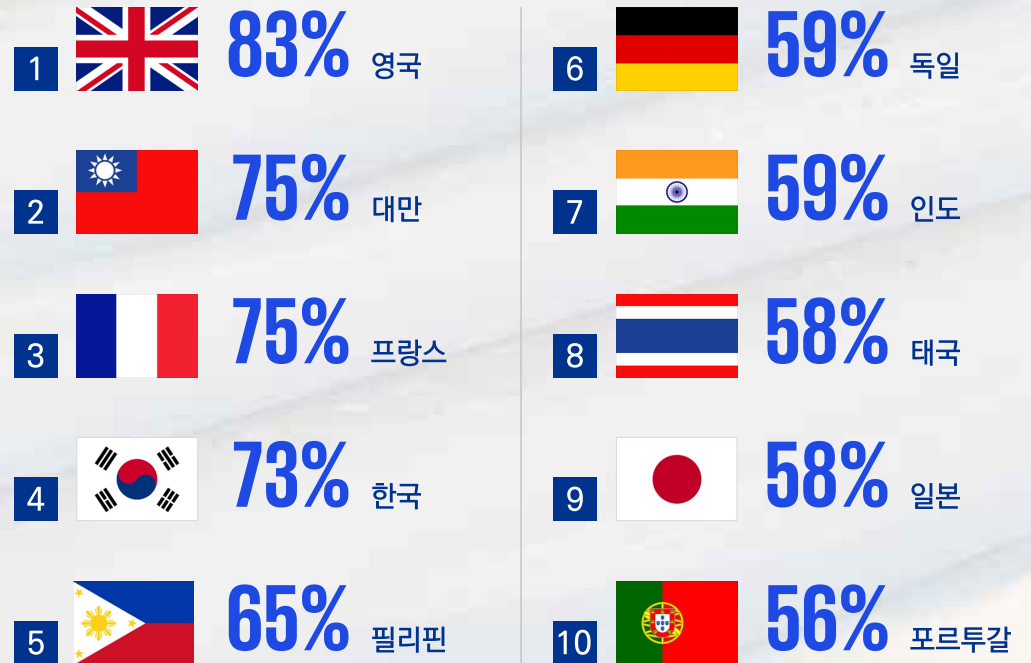
Note: N100(5,800개 기업) 및 G250(250개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고려사항: 한국, 경영진 주도 지속가능성 분야 선도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담하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더십이나 전담 팀을 보유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럼 어떤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리더십 분야를 주도하고 있을까?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가능성을 전담하는 리더십을 보유한 N100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83%)이다. 그 뒤를 대만(75%)과 프랑스(75%)가 공동으로 따르고 있다. 한국은 73%로 4위를 차지하며 경영진 등으로 구성된 리더십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선도 국가로 꼽혔다.

2022년 기준 N100 기업 중 지속가능성 전담 리더십 보유 기업 비율 상위 10개 국가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ote: N100(5,800개 기업) 대상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 그룹

Consulting Service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	---	--	---

Deal Advisory

김진만 부대표 T 02-2112-0786 E jinmankim@kr.kpmg.com	김진원 부대표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신수련 이사 T 02-2112-7528 E ssheen@kr.kpmg.com
---	---	---	---

Audit

김진귀 전무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	---	---	---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